

당국 “먹는치료제, 요양병원 최우선 공급…고위험군 보호”

‘요양시설 내 확진자 치료’ 기동전담반 연장 검토 “선별진료소 활용도 떨어져…비대면 진료 변동없어”

방역 당국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고령층·고위험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요양시설에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가 바로 처방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기저질환 확진자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기동전담반을 이날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구성하고 있다.

당국은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층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주간 평균 10만명 내외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중증사망자 중 고령층 비율이 높은 탓이다.

당국은 고령층 확진자가 평소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탑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고위험군 진단을 최대한 빨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은 1만개를 넘었고,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6305개가 운영 중이다.

손 반장은 “조금 더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전폭적인 협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각급 의료단체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손실보상금이나 수가 문제 등은 큰 방향성 속에서는 줄여나가되,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의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 체계 정착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점차 줄일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보건소 쪽의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의 활용도는 점점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



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정비 계획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주 뒤부터 확진자의 격리유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유지된다.

손 반장은 “앞으로 한 달 간 이행기 동안 확진자들의 격리체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

문에 그 기간 동안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변동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행기 이후에 격리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연장 또는 중단 등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장애공감 VR 체험 제42회 장애인 날인 20일 오전 대구 달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장애공감 체험행사를 찾은 한 시민이 휠체어에 앉아 장애공감 가상현실(VR) 체험을 하고 있다.

‘절도 등 총 전과 66범’ 10대 3명, 주차된 차량 훔쳐 달아나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훔쳐 도주한 10대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7)군 등 3명을 붙잡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 3명은 지난 19일 오전 4시 13분께 대

전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번호와 폐쇄회

로(CC)TV 등을 분석, 충남 공주 국도변 휴게소에 있던 일당을 범행 약 14시간 만에 붙잡았다. A군 등 3명은 모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절도 등 동종 범행을 총 66건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슬비기자

의붓딸 12년간 성폭행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임신·낙태 두 차례나 반복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범행으로 의붓딸은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신상 정보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모두 343차례 걸쳐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약행은 2002년부터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가 처음 범행한 2009년 B씨는 아홉살에 불과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B씨는 14세 때 첫 임신을 해야 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후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던 B씨가 성인이 된 후 최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12년간 수백회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을 일삼아 2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